

보도일시 (인터넷) 2023. 9. 3.(일) 11:00, (지면) 2023. 9. 4.(월) 조간 배포 2023. 9. 1.(금) 오후

# “추석 연휴에 여객선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연안여객선 전수점검 실시

- 9. 4.(월)부터 9. 15.(금)까지 12일간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여객선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4일(월)부터 9월 15일(금)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53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선박수리 등으로 비운항하는 3척 제외, 해당 기간 중 운항하는 전국 연안여객선 153척

추석 연휴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귀성객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특히 올해는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있어 여객선을 타고 섬을 찾는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 국민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추석연휴 전에 연안여객선 시설·설비\*\* 관리실태와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 여객 인과 관리를 위한 적정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 지방해양수산청(해사안전감독관),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안전감독관(15명)이 함께 참여

\*\* 선체, 갑판, 조타, 소방, 구명, 항해, 통신·전기, 기관, 조명설비 등 관리실태

또한, 그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의 상당수가 가을에 발생한 만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 절차와 선내 비상훈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만일의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한다.

해양수산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늦어도 추석 연휴 귀경길이 시작되는 9월 27일 전까지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하여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도경식 (044-200-5730)
	연안해운과	담당자	사무관	황진실 (044-200-5738)



△선박 내 화재제어장치 합동 점검



△구명뗏목 고정장치 등 설비관리상태 및 정상작동여부 점검



△구명장치(구조정) 고정장치 등 설비관리실태 점검 및 레버 고착(즉시조치)



△구명장치(구조정) 정상 작동 여부 확인